

	<h1>보 도 자 료</h1> <p>제공일 : 2021년 7월 21일</p> <p>사 진 : 포함(1매)</p>	작성과	의회사무과
		담당부서	부서장 : 김승구 팀 장 : 유병현 담당자 : 송왕우
		연락처	061)830-6097

고흥 동강 출신 산악인 김홍빈 대장 실종, 고흥군의회 의원 및 쏜 군민 무사귀환 염원

- 지난 19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 성공 후 실종된 김홍빈 대장(58)은 28세 때 등반 중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모두 잃는 시련 후에도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해낸 불굴의 산악인이다.
- '열 손가락을 잃은 산악인' 김 대장은 1964년 전남 고흥군 동강면 오수마을에서 태어났다.
- 김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정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 후 하산을 하던 중 19일 0시쯤 7900m 지점 크레바스(빙벽의 갈라진 틈)를 통과하다 추락한 후 현재 실종 상태이다.
-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은 “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김 대장의 구조와 무사 귀환을 전 군민들과 함께 기다리겠다”고 밝혔다.



- 김 대장은 2009년 7월 12일에도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거봉 K2(8611m)정상을 눈앞에 두고 '고흥은 우주다' 깃발을 펼쳐 들어 전 세계에 고흥을 홍보했다.